

일본 수출규제/한일 관계 동향(2020.6.1.~2020.6.7.)

1. 한국 정부의 WTO 제소 절차 재개

□ 6월 2일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하여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명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일 일본의 반도체 3개 소재의 대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¹⁾

-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국 정부는 2019년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의 조건부 정지 및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 바 있음. 그 후 양국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두 차례(2019. 12. 16, 2020. 3. 11) 실시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사유로 제시한 세 가지 사유는²⁾ 모두 해소되었다고 하면서 5월 말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달라고 한 바 있음.³⁾

→ 다만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즉시는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함(2020. 6. 1일자).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 관리상의 문제를 해소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기한 설정은 일방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임.⁴⁾

○ (일본) 한국 정부의 WTO 제소 절차 재개와 관련하여 일본 고위급 관료들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재계에서는 한국 측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

1)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브리핑, 「정부, 日 수출규제 조치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키로」,

2) 수출규제 사유로 경제산업성이 제시한 것은 ① 한일 정책대화 중단, ②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③ 수출관리 조직 및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임.

3) 「日 수출규제 놓고 WTO 절차 재개...다시 갈등 국면」, 「YTN」, (2020. 6. 3).

4) 「輸出管理撤廃要求、即座に応せず」, 「産経新聞」, (2020. 6. 1)

- 스가 관방장관은 6월 2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당국자간 의사소통을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매우 유감”이라고 하였으며, 모테기 외무장관은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유감”이라고 반발함.⁵⁾ 경제산업성의 한 관료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국 측의 발표내용을 정밀 조사한 뒤 검토하고 싶다”고 응답함.⁶⁾
- * 한편 모테기 외무장관은 6월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WTO 제소 절차 재개에 대해 항의함.
- 양국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지속과 관련하여 경제산업성 간부는 “쌓아왔던 것이 무너졌다”고 하였으며, 한 외무성 간부는 “왼손으로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악수하자는 이야기”라고 반응함.⁷⁾
- 경단련의 나카니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집권당이 총선에서 대승한 점을 감안하면, 여러 의미로 일본에 대한 대항 조치가 나올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의해야 한다”고 발언함.
- 한편 일본의 일부 언론은 WTO 분쟁이 지속되는 동안은 한국 정부가 조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들어 실제로 한국 정부가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함.⁸⁾

2.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진행

- 한국 법원의 자산매각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심각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
- (한국) 6월 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이 압류되었다는 결정문을 공시 송달하였으며, 동 압류명령 결정은 8월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됨.⁹⁾
- 8월 4일 0시부터는 일본제철에 결정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5) 「対韓輸出規制：紛争解決手続き再開 韓国、日本の輸出規制巡り」, 「毎日新聞」, (2020. 6. 3) 및 「韓国、提訴手続き再開へ WTOに 「日本の輸出規制、不当」, 「朝日新聞」, (2020. 6. 3) 등

6) 「韓国 WTOへの提訴手続き再開 日本の輸出管理強化措置で」, 「NHK NEWS WEB」, (2020. 6. 2).

7)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양국 간 정책대화는 지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이를 두고 닛케이의 일본은 양보를 얻고자 하는 한국 측의 전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보도함. 「韓国、WTO 手続き再開、輸出管理、 「日本、解決意思なし」.」, 「日本経済新聞」, (2020. 6. 3).

8) 각주 7과 출처 동일

9) 「日産鉄鋼 国内資産 매각 '또 한걸음' 진척...지연전략 계속될 듯」, 「연합뉴스」, (2020. 6. 4).

따라 법원은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됨.

- 일본 외무성은 2019년 2월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 후에 송달을 하지 않다가 2019년 7월 30일 한국으로 반송 조치함. 법원은 2019년 8월 7일 다시 송달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외무성의 답변이 없어서 공시 송달을 결정함.
- (일본) 공시 송달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자산 현금화가 실행되면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일본제철은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임.
- 공시 송달 절차 후 스가 관방장관은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설명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의 보호 측면에서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발언함.¹⁰⁾
- * 관방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 및 관련된 일련의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
- 당사자인 일본제철은 “공시송달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이어서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적 협상 상황도 감안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반응함.

10) 「「徴用」めぐる裁判 韓国の裁判所 資産売却命令8月以降検討か」, 「NHK NEWS WEB」, (2020. 6. 4).